

## 호남석유화학, 상생프로그램 점검

호남석유화학은 허수영 사장이 7월20일 인천에 있는 협력기업을 찾아 상생프로그램을 점검했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장 펀드를 500억원에서 870억원으로 확대했다.

허수영 사장은 밸브 및 제어장치 생산기업인 한국스파이렉스사코와 플랜트 설비 제작기업인 썬플랜트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반성장 간담회 등을 열어 협력기업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됐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

<화학저널 2012/07/23>